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사상가 파커스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을 '보편'과 '특수'의 관계에서 찾는다. 전통적으로 보편은 여럿을 묶는 상위의 실재로, 특수는 그 불완전한 모사(模寫)로 간주되어 위계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파커스는 보편이 특수와 분리된 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들을 묶는 방식으로서 특수와 함께 있다고 본다. 그가 이 관계를 부르는 이름이 '병존(並存)'이다. 그에 따르면 병존은 둘을 나란히 늘어놓는 단순한 공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동일한 바탕이 여러 표상으로 각각 전체로서 성립하되 어느 하나라도 환원되지 않는 상태이다. 사인(sim) 함수가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로도, 단위원의 좌표로도, 무한급수로도 빠짐없이 규정되는 것이 그 예이다. 어느 정의도 다른 정의의 파생이 아니며, 각각이 사인을 온전히 규정한다. 파커스는 이것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차이가 아니라 대상 자체의 객관적 다중성이라는 점에서 병존을 상대주의와 명확히 구분한다.

파커스의 체계에서 진리는 세 층위로 분절된다. 가장 깊은 층위에는 아직 무엇으로도 나뉘지 않은 '있음 그 자체'가 있다. 그것은 참과 거짓으로 분열되기 이전이므로,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배중률(排中律)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커스는 이 층위를 두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까닭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서술을 갖다 대어도, 설명 모순된 서술이라 해도 참이 된다"고 말한다. 이 층위는 언어로 포착되지 않고 다만 경험될 뿐이다. 다음 층위에서 이 근본은 참과 거짓으로 분열하며, 비로소 배중률이 작동하는 과학과 논리의 영역이 열린다. 마지막 층위에서는 분열된 것들이 사람들의 소통과 사회적 확인을 거쳐 다시 의미로 엮인다.

여기서 파커스는 까다로운 물음에 부딪힌다. 근본 층위가 배중률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층위를 서술하는 파커스 자신의 이론은 배중률을 따르는가. 만일 따른다면 그는 "배중률은 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 하면서도 자기 이론에는 배중률을 특권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된다. 따르지 않는다면 이론은 스스로 모순을 허용하여 무너진다. 파커스의 대응은 이렇다. '무모순'이라는 요구 자체가 이미 배중률을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배중률 너머의 근본 층위에는 무모순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그러나 이론은 그 근본을 언어로 표상해야 하고, 언어는 개인의 무한한 의미를 보편적 기호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손실을 겪는다. 따라서 근본을 언어로 서술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모순에 부딪힌다. 파커스는 이 모순을 이론의 결함이 아니라, 배중률 너머의 것을 배중률의 언어로 옮길 때 생기는 구조적 귀결로 받아들인다.

진리에 다가가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 파커스는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되 인간이 그것에 직접 닿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반증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사용될 때 그것을 '진리의 대리자'로 삼는 일이다. 이때 두 조건—반증되지 않음과 다수의 사용—이 충돌할 경우, 파커스는 반증 가능성을 앞세운다. 애초에 원리상 반증조차 할 수 없는 주

장은, 설명 거짓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다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보는 모든 관측이 사실은 거대한 기반이며 참된 우주는 따로 있다"는 주장은 반박할 길이 없고, 바로 그 반박 불가능성 때문에 무의미한 것으로 제쳐진다.

파커스 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합(綜合)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더 높은 단계의 통일로 끌어올려 통합하지 않는다. 대립항들은 끝까지 병존하는 상태로 남는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설명할 수 없이 다만 마주칠 뿐인 영역—곧 근본 층위의 '있음 그 자체'—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체계 바깥에 남겨 둔다. 파커스는 이 구분이야말로 자기 이론의 강점이라 주장한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한다고 공언하는 틀은 어떤 반례로도 반박되지 않으며, 반박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점에서 자신이 경계하는 '무의미한 주장'과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이다. 설명의 한계를 스스로 긋고 그 너머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의 틀이 무엇이나 들어맞는 도장이 아니라 제 적용 범위를 지닌 구조임을 보증한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커스는 보편을 특수들을 묶는 방식으로 파악한다.
- ② 파커스는 근본 층위에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파커스는 반증할 수 없는 주장을 거짓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다.
- ④ 파커스는 대립항들을 더 높은 통일로 통합하지 않는다.
- ⑤ 파커스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체계 바깥에 남겨 둔다.

11. '병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대상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를 가 려내는 일이다.
- ② 하나의 바탕이 여러 표상으로 각각 온전히 성립하며 어느 하 나로 환원되지 않는 상태이다.
- ③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 ④ 대립하는 두 항을 더 높은 단계에서 화해시키는 운동이다.
- ⑤ 보편이 특수보다 참되다는 위계를 두 항 사이에 설정하는 것 이다.

12. 윗글에 나타난 '자기 이론은 배중률을 따르는가'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파커스의 대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커스는 자기 이론에만 배중률을 면제함으로써 모순을 피한 다.
- ② 파커스는 근본 층위가 배중률을 따르므로 물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파커스는 '무모순'의 요구가 배중률을 전제하므로 근본 층위 에는 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파커스는 언어가 의미의 손실 없이 근본을 표상할 수 있다고 보아 모순을 부정한다.
- ⑤ 파커스는 이론이 모순에 부딪히는 것을 회피해야 할 오류로 규정한다.

13. <보기>는 파커스의 관점에 대한 두 비판이다. 윗글을 근거로 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근본 층위에서는 모순된 서술도 참이라니, 이는 무엇이 든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것과 같 다."

㉡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바깥에 남겨 둔다는 것은 결국 설명을 포기한 것이며, 이론의 미완성을 정당화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 ① ㉠에 대해: 근본 층위는 참·거짓으로 분열되기 이전이므로 모순된 서술이 '참'이라는 말은 명제의 진리값이 아니라 분열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반박할 수 있겠군.
- ② ㉠에 대해: 근본 층위에서도 배중률은 작동하므로, 모순된 서술은 결국 거짓으로 판정된다고 반박할 수 있겠군.
- ③ ㉡에 대해: 모든 영역을 설명하는 틀일수록 우월하므로, 바 깥을 남긴 것은 보완해야 할 결함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겠 군.
- ④ ㉡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사실 존재하지 않으며, 파커스가 그것을 가정한 것은 오류라고 반박할 수 있겠군.
- ⑤ ㉠과 ㉡에 대해: 두 비판 모두 진리의 대리자가 다수의 사용 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겠군.

14. 윗글의 파커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천문학자가 "관측되는 모든 천체 운동은 사실 신이 인 간을 시험하기 위해 빚어낸 환영이며, 참된 천체는 영원히 관측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어떤 관측 결과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 ① 이 주장은 어떤 관측으로도 반박할 수 없으므로 반증 가능성을 결여한다.
- ② 파커스라면 이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다룰 가치 가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이 주장이 무의미한 까닭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이 주장은 반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틀' 과 동일한 약점을 지닌다.
- ⑤ 이 주장은 다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진리의 대리자 가 될 자격을 잃는다.